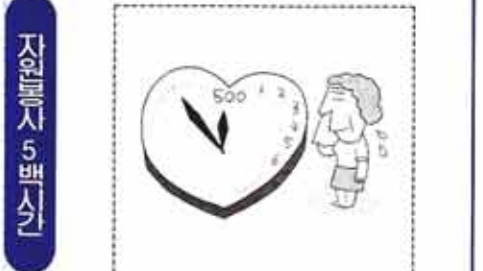


화요일이다.
고경순보살(62)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대구 자비의 전화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상담 시간이 끝나면 노인무료급식소로 달려가야 하고 둘째 아들을 만나 상록노성마비복지관에도 가야 한다.
주변에서는 "연세도 많고 화장지도 많고 있으니 전화 상담은 그만 해도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고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보살은 "전장에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호장 소임을 볼 수 있느냐"며 화요일마다 전화 있어 않는다. 길러 오는 전화들 통해 남의 고민을 들어 주고 함께 아파하며 새 길을 찾는 순간마다 고보살은 세상은 혼자 살아 갈 수 없는 인연의 그들 속임을 절감한다.
30년전부터 남을 위한 삶을 살아 온 고보살은 7월 7일 불교사회복지회가 주최한 98자암봉사대회에서 5백시간 이상 봉사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물론 5백시간이란 시간에 집착하지 않는다. 30년 세월의 봉사활동을 시간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전화상담 외에도 거의 매일 노인복지관과 노성마비복지관을 찾아 식사며 빨래 봉사를 하는 고보살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봉사와 나눔이다. 그런 고보살의 나눔들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둘째 아들이다. 한의사인 둘째 아들이 어머니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우 두세 차례씩 바쁜 진료시간을 쪼개 상록노성마비복지관을 찾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기 그지 없다.
"아들과 함께 복지관에 가는 날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사람을 헌신적인 마음으로 맞아 주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모자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지요."
고보살은 노성마비 복지관을 나올 때마다 팔공산을 바라 본다. 팔공산 사찰들에 모셔진 부처님들께 마음속으로 기도할 하는 것이다. 전생의 어떤 업으로 인해 저토록 불편한 몸을 받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노성마비아들이 조급이나마 행복할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한다.
이윤호 기자(yuhoo@buddhapia.com)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대선공약 이행 '다짐'

국민회의 사무총장, 월주스님 예방 농지법 개정등 밝혀

정부와 여당이 농지법시행규칙의 법제화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종교편향과 해탈 여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작년 대선 당시에 내놓은 대불교계 공약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회의 정경환사무총장은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해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불교계 공약사항의 이행과 종교편향 사례 해탈사건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사무총장에 따르면 조규환 청와대 사회복지수석과 이길용 총무실장, 정수부 법제처장, 박한정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만나 8일 15일 법제처가 반려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 법제화한다는데 긍정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청와대 모임에 참석한 이길용 총무실장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의견이 모아

공약이행 다짐 내용
농지법시행규칙 법제화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국민회의 종교위원회설치
해탈사건 강력 대처
불교방송 지방망 확충

진 만큼 농림부가 다시 농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면 법제화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이끌어 낼 관련 자료들을 법제처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측은 "법적으로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인정하는 데는 여전히 법리상의 어려움이 따른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관련 정사무총장은 폐지의 당위성을 검토해 정부가 폐지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사무총장은 또 정부 인사상의 종교편향과 거들되는



인도에 한국 불교유치원 한국JFS(이사장 법륜)는 인도 보드가야 동게스오리 인근 17개 마을 어머니회를 조직 하고 10곳의 유치원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진은 인도 수지타이카데미에서 법륜스님과 현지 어머니·학생들. <관련기사 29면>

지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대불교신문은 새싹봉자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 어린이캠프를 연다. 사찰과 용인 에버랜드의 자연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길러주는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는 새싹봉자들에게 유익하고 신나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불자임이 자랑스럽고 함께 있을수 있거늘 어린이 연인캠프에 많은 어린이들과의 동참을 바랍니다.

- 용인 에버랜드·사찰에서 2박3일**
- 일 정: 1998년 7월23일(목)~25일(토)(2박3일)
 - 장 소: 용주사 신록사 폭어바들관 와우정사 경주사 백령사 에버랜드
 - 대 상: 초등학교 1~6년 (5백명 선착순)
 - 특 정: △불교문화유적 답사 △에버랜드서 속식물 이식실·수영장 캐리비안메이저사 이용 아이타전 관람 △불교로케이션이전·이침 저녁 예불·참선, 불교교리 공부 △T셔츠 기념품 선물 제공
 - 준비물: 23일 점심, 수영복, 수영모자, 해변도구, 필기구, 이불
 - 집 결: 25일 오전10시 조계사
 - 서울도착: 25일 오후6시 조계사
 - 참가비: 5만원
 - 문의 의: 현대불교신문 (02)732-1523, 722-4162
 - 은행계좌: 조계종은행 322-04-221490(상징호)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선재이벤트
후원: 조계종 포교원·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협찬: 불교조각원·현대프로덕션·(사)한국불교교육복지선도회

국방부 종교화합 간담회 연다

'성경선서' 송파구청장 사과...강북구청장은 뱀뱀

군대 종교화합 및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중단대표자 초청 간담회와 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방부 박성대 군종실장은 15일 해병대 개신교군종사법회의 서울역 앞 집단선교행위와 관련, 국방부를 항의방문한 '종교편향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진관스님)와의 면담에서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계획을 밝히고 국방장관의 승인까지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최 일시는 아직 미정이다.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 개신교 군종파송 교단 대표, 천주교 군종교구장과 불교·개신교·천주교 신도대표, 국방장관, 군종실장, 육·해·공군 군종감 등이 참석해 중단 대표위원의 발족과 통과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군종실장은 또 8일 각 군에 '군종업무에 관한 규정'이



○김성순 송파구청장은 16일 '성경선서'와 관련 사과 했으나 강북구청장은 사과를 거부했다(사진).

종교인의 안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타종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강북구청장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 것을 종교편향이라고 함의하는 것이 오히려 종교탄압"이라며 사과를 거절해 '성경선서'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위원회는 또 부산 금정사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 검 경력부를 방문, 조사활동을 벌였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원명선원 해탈유감 제주 종교인협 성명

제주도내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제주종교인협의회는 14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원명선원 해탈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교인들에게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올바르게 가르치

흔들리는 직장법회 ② 침례요인 진단 5년

이렇게 들었다 '식물국회' 20면

도서출판 **세운**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한빌딩 / 전화: 3462-2277 / 팩스: 3462-2279

역사속으로 찾아가는 죽음기행!

남산이 복산을 보여 웃네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말화가 있다.
맹랑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 - <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담은 글 있었다 - <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 - <경향신문> 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질자, 옥산상과 왕수연, 소강철과 서희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 - <현대불교신문> 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 - <서울신문> 5.5.

· 신국판 | 304쪽 | 값 7,000원 · 저자: 맹 란 자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를 위해 가격에서 거품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강남)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